

# 김천 大休寺의 일본 불교 존상과 일제강점기 대구 遍照院

배재호(裴宰浩)

## I. 머리말

## II. 대휴사의 일본 불교 존상

1. 목조대일여래좌상
2. 목조홍법대사좌상
3. 목조부동명왕좌상

## III. 대구 편조원과 三輪身像

1. 新義眞言宗 智山派 대구 편조원
2. 대구 편조원 본당의 삼륜신상

## IV. 맺음말

---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주요 논저: 『중국의 불상』(일지사, 2005); 『동양미술사』(미진사, 2006, 공저); 『연화장세계의 도상학』(일지사, 2011); 『세계의 석굴』(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중국 불상의 세계』(경인문화사, 2018) 등

경상북도 김천 大休寺의 일본 불교 존상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경에 일본 新義眞言宗 智山派가 대구에 설치한 別院, 즉 대구 遍照院 본당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들 존상 중 木造 弘法大師坐像은 일본 진언종을 개창한 고보다이시 쿠카이(弘法大師 空海, 774-835)의 모습이며, 木造 大日如來坐像과 木造 不動明王坐像은 진언종의 불교 사상과 신앙을 대표하는 존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대일여래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은 대부분 마애상이나 석조상으로, 대휴사의 존상들은 당시 일본 사찰에 봉안된 나무로 만든 일본 불교 존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들 불교 존상은 조형적으로는 근대적인 미감을 갖추고 있지만, 그 도상적인 연원은 헤이안(平安)시대(794-1185)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대일여래상은 신의진언종을 개창한 고교다이시 가쿠반(興教大師 覺鑊, 1095-1143)이 만든 대일여래상의 신앙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홍법대사상은 고보다이시 쿠카이의 제자였던 신노신노(眞如親王)가 그린 신노신노 스타일[樣]을 따르고 있고, 부동명왕상은 겐조(玄祖) 스타일의 十九觀 부동명왕상을 답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대구 편조원에 봉안되었던 당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이들 존상은 신의진언종의 三輪身像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대일여래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이 각각 自性輪身, 正法輪身, 敎令輪身의 성격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50년대 전반의 悉達寺(대구 편조원의 후신)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전신인 일제강점기의 대구 편조원에서 고보다이시 신앙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본당 내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싯달사 본당에 놓여 있던 유골들은 11세기 이후 고보다이시 신앙과 함께 유행했던 고야산(高野山)의 納骨 신앙의 전통을 보여 준다.

주제어: 대구 편조원, 김천 대휴사, 대일여래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 신의진언종 지산파

# 김천 大休寺의 일본 불교 존상과 일제강점기 대구 遍照院

배재호(裴宰浩)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 I. 머리말

경상북도 김천 文義山 대휴사 비로전에는 일본 진언종 사찰의 주요 예배 대상인 木造大日如來坐像, 木造弘法大師坐像, 木造不動明王坐像이 봉안되어 있다. 이들 일본 불교 존상은 원래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까지 대구광역시 북성로의 悉達寺에 있었다. 1960년경, 신탄사가 폐사되어 승려들이 김천 대휴사(당시 은적암)로 거처를 옮기면서 대일여래상을 가져왔고, 이 때 흥법대사상과 부동명왕상은 대구 水道山의 瑞鳳寺(당시 서봉암)에 맡겨졌다가 2022년 1월 19일에 서봉사 스님들에 의해 대휴사로 반환되었다.<sup>1</sup>

신탄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한국 전쟁 직후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sup>2</sup> 신탄사 불전은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건물로, 안쪽에는 불교 존상들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신탄사가 있던 곳에는 현재 서문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기록을 통하여 일제강점기에 일본 불교 사찰인 편조원(遍照院, 현조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탄사는 1910년경에 창건된 편조원의 후신으로

---

1 목조흥법대사좌상과 목조부동명왕좌상은 2021년 11월 26일에 대구 서봉사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처음 실견하였으며, 이들 존상이 신탄사(신탄르타를 뜻하는 절 이름)에서 왔다는 사실은 서봉사의 경희 원로스님과 명음 주지스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후 신탄사의 승려들이 1960년대 초에 김천 은적암으로 옮겨갔고, 현재 그 문중들이 은적암의 후신인 대휴사에 주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1월 14일에 대휴사를 방문하여 제철 주지스님과 수정 스님으로부터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신탄사 주존이던 목조대일여래좌상이 현재 비로전에 봉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1950년대 전반에 약 2년간 신탄사에 거주했던 원숙자 여사(당시 10대 초반)의 증언(2021년 12월 22일 인터뷰)에 따르면, 법당 내부 바닥은 2단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안쪽 상단에는 불상들이 봉안되어 있었고, 문 입구 쪽 하단에서는 예불이 이루어졌는데, 그 오른쪽 벽에 사람들의 유골들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서, 해방 직후 우리나라 승려들(현 김천 대휴사 승려 문중)에게 맡겨져 절 이름이 바뀐 것이다. 1950년대에 대일여래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 등 일본 진언종의 불교 존상들이 신타사에 봉안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sup>3</sup>

본고에서는 대휴사의 일본 불교 존상의 도상적·조형적인 특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일본 진언종 사찰의 불교 존상이 지닌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구 편조원에 봉안되었던 불교 존상의 전모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들 존상은 당시 사찰의 분위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특히 일본 사찰에 봉안되었던 일제강점기의 목조 불교 존상들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들 존상이 지닌 미술사적·불교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Ⅱ. 김천 대휴사의 일본 불교 존상

대휴사의 일본 불교 존상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 배경을 알 수가 없다. 다만 1910년대에 일본 新義眞言宗 지산파(智山派, 치산파)의 대구 別院이던 편조원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것과 이들 존상이 고보다이시 쿠카이(弘法大師 空海, 774-835)와 그가 창시한 진언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sup>4</sup>

### 1. 목조대일여래좌상

목조상은 보관과 팔찌를 착용하고 상체에 条帛만 걸치고 있어서 보살상 같지만,<sup>5</sup> 백호와 삼도를 갖추고 지권인을 결한 불상이다(도1-도5). 이 상과 닮은 지권인의 장엄여래상은 대부분 金剛界 밀교의 주존인 대일여래로, 편조원이 일본 밀교의 신의진언종 지산파에 속해 있다는 점도 이 상이 대일여래일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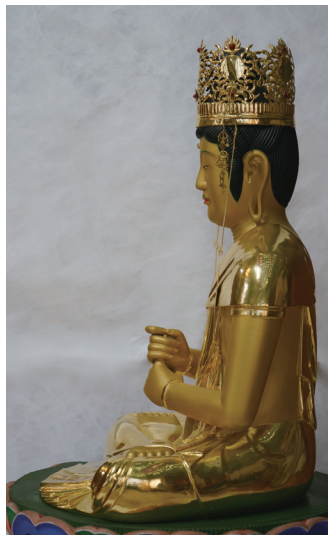
3 1947년에 대구불교부인연합회의 요청으로 신타사의 운영을 맡았던 혜옥 스님(1901-1969)이 1956년에 청암사 주지로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신타사의 존립 시기는 대략 1947년경부터 1956년경 까지로 추정된다.

4 1950년대에 신타사에는 이들 존상 외에 사찰 마당 한쪽에 석조불입상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지만, 어떤 불상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5 일본 진언종 사찰에 있는 대부분의 대일여래좌상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서 대휴사 상도 원래는 따로 만든 목걸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은 높이 71cm, 무릎 폭 48.5cm이며, 밑바닥은 가로 45.5cm, 세로 42.5cm이다. 보관은 높이 12.8cm, 지름 15cm이며, 冠縵의 길이는 36cm이다. 대좌는 높이 24.8cm이며, 상대 윗판은 가로 57.5cm, 세로 49cm이고, 하대 아랫판은 가로 68cm, 세로 54.5cm이다.



도 1. 목조대일여래좌상, 높이 71cm



도 2. 목조대일여래좌상 왼쪽 옆면



도 3. 목조대일여래좌상 뒷면



도 4. 목조대일여래좌상 밑면



도 5. 목조대일여래좌상 머리

대휴사 대일여래상의 조형적인 특징은 고보다이시 쿠카이가 唐으로부터 가져왔던 대일여래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즉 그가 가져왔던 ‘兩部(兩界)曼荼羅’의 금강계 대일여래상과 ‘金剛界 八十一尊曼荼羅’의 대일여래상도 장엄여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지런히 묶어 올린 대휴사 상과 달리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휴사 상의 도상적인 원류가 쿠카이가 가져왔던 이들 만다라의 금강계 대일여래와 관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양부만다라〉의 주존이자 고보다이시 쿠카이의 佛身觀에서 가장 중요한 붓다인 대일여래상은 밀교가 유행하던 헤이안(平安)시대(794-1185)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대휴사 상의 보관 형식과 조백의 표현 방식은 일본에 있는 신의진언종 지산파 사찰의 대일여래상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 중에서도 무로마치(室町)시대인 1404년과 1405년에 조성된 와카야마현(和歌山県) 네고로지(根來寺) 大傳法院의 목조대일여래좌상은 가장 닮은 예이다(도6). 이 불상은 신의진언종을 개창한 고교다이시 가쿠반(興教大師 覺鑊, 1095-1143)이 도지[東寺, 교오코고쿠지(教王護國寺)] 강당의 대일여래상을 모방하여 1132년에 만든 목조대일여래좌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6</sup>

네고로지 대일여래상이 고교다이시 가쿠반이 만든 대일여래상의 전통을 따른 것과 같이 대휴사 대일여래상도 네고로지 상의 종교적 분위기와 불상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대휴사 상은 네고로지 대일여래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근대적인 미감이 반영된 조형을 갖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sup>7</sup>



도 6. 목조대일여래좌상, 1404~1405년, 높이 3.5m, 네고로지(根來寺)  
大傳法院 소장(사진 출처: 山本勉, 『佛像 日本佛像史講義』(東京: 平凡社, 2013), p. 281.)

6 1585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해 네고로지가 공격을 받아 불상들이 해체되어 오사카(大阪)와 교토(京都) 각지에 흩어져 전전하다가 1827년에 대전법원에 다시 봉안되었다.

7 불상의 대좌 밑바닥에는 2014년 5월 10일에 기존의 대일여래에서 비로자나불로 다시 봉안한다는 기록이 적혀 있다(“비사리 一果와 법신사리 二果를 문의산 대휴사 비로자나부처님에게 甲午年 5月 10日 봉안”). 대휴사의 수정 스님에 의하면, 불상의 재봉안 의식은 경암스님이 진행하였으며, 원래 복장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리도 봉안하진 않았다고 한다.

## 2. 목조홍법대사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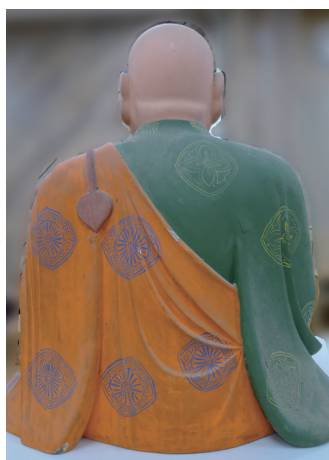
목조승려상은 가슴 중앙과 무릎 위에 놓인 양손의 위치로 보아 일본 진언종의 宗祖인 홍법대사상(쿠카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본에 전하는 대부분의 홍법대사상들이 가슴 중앙에 둔 오른손으로 금강저를, 무릎 위에 놓인 왼손으로 염주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목조승려상의 오른손에는 부서진 금강저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지물이 남아 있으며, 왼손에는 염주를 끼웠던 구멍이 오픈된 손가락과 손바닥 사이에 나 있다. 대휴사 홍법대사상은 가부좌한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중앙에, 왼손은 무릎 위에 두었다(도7~도10). 대사상은 長衫을 입고, 그 위에 袈裟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걸치고 있다.



도 7. 목조홍법대사좌상, 높이 71cm



도 8. 목조홍법대사좌상 왼쪽 옆면



도 9. 목조홍법대사좌상 뒷면



도 10. 목조홍법대사좌상 밑면

홍법대사상은 초상 조각이 유행하던 가마쿠라(鎌倉)시대부터 활발하게 조성되었지만, 그가 입적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한다.<sup>8</sup> 그의 십대 제자였던 신노신노(眞如親王)가 그렸다는 고야산 御影堂의 초상화가 그 예로, 신노신노 스타일[樣]의 초상화는 이후에 조성된 홍법대사상의 모델이 되었다.<sup>9</sup> 헤이안 시대인 12세기의 곤고지본(金剛寺本) 초상화는 이 스타일을 답습한 대표적인 예로, 홍법대사는 나무 의좌에서 가부좌한 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으며, 의좌 아래에는 정병과 신발이 놓여 있다. 각진 후두부와 하관이 넓은 둥근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오른손은 금강저를, 왼손은 염주를 들고 있다. 그러나 대후사의 홍법대사상을 비롯한 현존하는 초상 조각들은 대부분 신노신노 스타일의 초상화와 달리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 초상 조각들이 오른쪽이 아닌 정면을 바라보는 것은 불교 신자들이 마주 보며 예배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sup>10</sup> 이 스타일을 답습한 대표적인 예로는 1233년에 고우쇼[康勝, 운케이(運慶)의 넷째 아들]가 만든 교토 도지의 홍법대사상이다(도11).

한편 1931년 전라남도 목포 유달산에 조성된 신시코쿠(新四國) 88개소 靈場의 홍법대사상도 신노신노 스타일을 따르고 있어서 같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대후사의 홍법대사상과 이 스타일과의 관련 가능성을 추측하는데 도움을 준다.<sup>11</sup> 신시코쿠 88개소 영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시코쿠(四



도 11. 목조홍법대사좌상, 일본 1233년, 높이 83.3cm, 도지(東寺) 소장(사진 출처: 文化庁)

8 小倉右一郎, 「弘法大師の肖像」, 『密教研究』 46(1932), pp. 57-67.

9 濱田隆, 「高野山の弘法大師像」, 『Museum』 137(1962), pp. 25-28.

10 田邊三郎助, 「東寺西院御影堂の弘法大師像」, 『國華』 910(1968), pp. 9-19. 한편 고야산 곤고부지(金剛峰寺)에 있는 일명 만니찌다이시상(萬日大師像, 홍법대사상)과 같이 신노신노 스타일의 초상화를 충실하게 답습하여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린 예도 있다. 京都國立博物館·愛知県美術館·東京國立博物館·和歌山県立博物館, 앞의 책(2004), p. 260; 仙台市博物館, 『東日本大震災復興記念 特別展 空海と高野山の至宝』(東京: 共同通信社, 2017), p. 157.

11 이경화,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弘法大師像과 88靈場」, 『동북아역사논총』 47(2015), pp. 171-200; 이경화, 「근대기 목포 유달산의 마애조각」, 『불교미술사학』 28(2019), pp. 278-279.



國) 영장 순례<sup>12</sup>를 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위해 조성한 것이다.<sup>13</sup> 유달산 바위면에 새겨진 홍법대사상은 의좌 위에서 가부좌한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오른손으로 금강저를, 왼손으로 염주를 잡고 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의좌 아래에 신발과 정병이 표현되어 있어서 신노신노 스타일을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휴사의 홍법대사상이 대구 편조원에 봉안되던 1910년경에 유달산 상과 같이 의좌, 정병, 신발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 3. 목조부동명왕좌상

대휴사 부동명왕상은 머리가 몸에 비해 큰 편이며, 눈, 입, 이를 제외하고 검은색을 띠고 있다(도12-도15). 오른손은 허리까지 올려서 칼을 잡고 있으며, 왼손도 들어 올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불탑이 매달린 철사 고리를 들고 있는데, 철사 고리는 부동명왕의 지물인 羂索(끈)을 나타낸 것이다. 팔에는 臂釧과 腕釧이 표현되어 있으며, 따로 만든 목걸이에는 초화문이 투각 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왼쪽 어깨와 왼팔 팔뚝을 가린 조백의 표현 방식, 무릎과 오른쪽 다리 앞의 옷 주름 등은 대일여래상과 닮았다.

일본의 부동명왕 신앙은 고보다이시 쿠카이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부동명왕의 가장 이른 형식인 『不空羂索神變眞言經』의 不動尊이 처음 조성된 것도 그의 귀국 이후이다.<sup>14</sup> 초기의 부동명왕상은 두 눈을 자연스럽게 뜬 채 윗니로 아래 입술을 깨물고 있으며,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다. 부동명왕의 부드러운 얼굴 표정은 『胎藏圖像』의 不動과 닮았지만<sup>15</sup>, 고보다이시 쿠카이가 〈양부만다라〉를 모델로 하여 직접 창안한 것으로 보아 고보다이시 스타일[樣]의 부동명왕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휴사의 부동명왕상은 고보다이시 스타일이 아니라 10세기 이후에 조성된 겐조 스타일

12 毎日新聞社, 『四國靈場八十八ヶ所 空海と遍路文化展』(東京:毎日新聞社, 2002); 원영상, 「일본불교의 영장(靈場)과 성지순례문화 연구: 근대의 종교상황에 이르기까지」, 『종교연구』 52(2008), pp. 95-125; 인천광역시,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인천·부산·목포에서 찾아-」 인천역사문화총서 87(2019), pp. 44-51; 大石雅章, 「四國遍路と弘法大師信仰」, 『四國遍路と世界の巡禮』 1(2016), pp. 2-11.

13 현재 기록과 유물이 남아 있는 신시코쿠 영장은 부산, 인천, 마산, 목포, 군산, 청진 등에 있다. 신시코쿠 영장을 구성하는 88존상의 일련번호와 존명은 일본의 시코쿠 88개 사원의 순례 번호와 각 사찰에 봉안된 주존과 일치한다. 인천광역시, 앞의 책(2019), pp. 52-53.

14 『대일경』이 쿠카이가 입당하기 전에 일본에 전래되었기 때문에 부동명왕의 도상이 이미 들어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開元釋教錄』 20권(730년 찬술)에 겐보(玄昉, ?-746)가 一切經을 가지고 귀국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대일경』이 이 때 전래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賴富本宏, 앞의 논문(2009), p. 152.

15 賴富本宏, 『曼荼羅の鑑賞基礎知識』(東京: 至文堂, 1991), p. 95. 善無畏 (637-735)의 『태장도상』의 부동명왕은 가장 오래된 형식으로서 대일여래의 使者의 모습을 하고 있다. 福地佳代子, 「脇侍像における童子形表現の展開-不動明王二童子像を通して-」, 『東北福祉大學研究紀要』 33(2009),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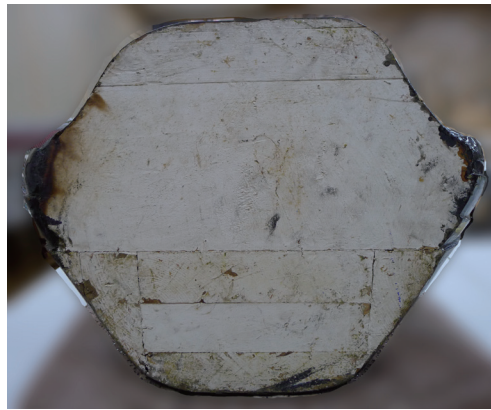
도 12. 목조부동명왕좌상, 높이 60cm



도 13. 목조부동명왕좌상 왼쪽 옆면



도 14. 목조부동명왕좌상 뒷면



도 15. 목조부동명왕좌상 밑면

(玄祖様)의 十九觀 부동명왕상과 닮았는데, 즉 사시인 왼쪽 눈을 가진 짝눈의 天地眼과<sup>16</sup> 아래위로 하나씩 솟아 나온 이를 가진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다. 십구관 부동명왕상의 대표적인 예는 신의 진언종 지산파 사찰인 도쿄 高幡山 곤고지(金剛寺)의 不動堂에 봉안된 목조부동명왕상을 들 수 있다 (도16).<sup>17</sup> 대휴사 부동명왕상은 겐조 스타일의 십구관 부동명왕상을 답습하고 있지만, 七莎髻가 연상 되는 頂髻, 卷髮 모양의 앞쪽과 옆쪽의 머리카락, 빗은 듯이 정리된 뒤쪽의 머리카락, 왼쪽 귀 앞의

16 일본의 부동명왕상은 두 눈을 비슷한 크기로 뜨고 있는 兩眼瞋과 왼쪽 눈을 사시로 표현한 천지안으로 구분된다. 井上正, 「不動明王彫像に関する問題点」, 『研究発表と座談会 不動明王の諸相 最澄と空海の書風について』[仏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 仏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報告書 8冊(1981)], pp. 5-8.

17 奥 健夫, 「金剛寺藏 木造不動明王及び二童子像」, 『國華』 1401(2011), pp. 62-64.



도 16. 목조부동명왕좌상, 1342년 후보, 높이 2.85m, 도쿄(東京) 곤고지(金剛寺) 不動堂 소장(사진 출처: <https://www.takahatafudoson.or.jp/>)

간략화된 변발, 해학적인 얼굴 표정,<sup>18</sup> 인체해부학에 기초한 얼굴과 팔의 과장된 근육 표현 등에서 대구 편조원이 창건되던 20세기 초의 조형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대휴사 부동명왕상이 현존하는 일본의 부동명왕상과 다른 점은 견삭의 형태이다. 대부분의 부동명왕상들은 한쪽 끝엔 고리가, 다른 쪽 끝엔 독고저가 달린 견삭을 잡고 있는데, 대휴사 상에서는 견삭이 불탑이 달려 있는 2줄의 철사로 표현되어 있다. 불탑은 주존인 대일여래의 本願을 상징하는 三昧耶形으로, 교토 도지 강당의 대일여래좌상의 보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대일여래의 보관 중앙에 표현된다. 대휴사 부동명왕상이 불탑이 달린 견삭을 들고 있는 것도 이 상이 도상적으로 대일여래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 준다.

18 부동명왕상에서 해학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11세기부터이다. 中野玄三, 『不動明王画像の諸相』, 『研究発表と座談会 不動明王の諸相 最澄と空海の書風について』(仏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 仏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報告書 8冊(1981)), pp. 1-4.



### Ⅲ. 대구 편조원과 三輪身像

#### 1. 신의진언종 지산파 대구 편조원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일본 불교는 부산, 인천, 목포, 군산 등 개항장이 있던 항구 도시에 들어왔다. 淨土眞宗 오파니파(大谷派), 日蓮宗, 曹洞宗, 淨土宗, 法華宗, 진언종 고야파(高野派), 신의진언종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이들 종파는 항구 도시 외에 서울, 대구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 별원과 포교소를 설치하였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sup>19</sup>

대한제국 시대까지 경상감영의 소재지였고, 1905년에 경부선 철도의 개통과 함께 교통의 중심지가 된 대구에서는 1904년 4월에 다이와마치(大和町)에 별원을 개설한 일본 眞宗 혼파(本派) 혼간지(本願寺)를 시작으로, 다음 해에 혼마치(本町)의 정토종 분원이, 이어서 진언종, 일련종, 조동종의 포교소(혹은 별원)가 설치되었다.<sup>20</sup> 대휴사 불교 존상들의 원래 봉안처인 신의진언종 지산파의 대구 편조원은 모토마치(元町)에 조성되었다.

신의진언종 지산파는 일본 진언종의 한 계파로, 고야산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진언종이 침체되자 1140년에 고교다이시 가쿠반과 그의 제자들이 네고로산으로 거처를 옮겨 진언종을 부흥시켰는데, 이후 기존의 고야산 진언종을 古義로, 네고로산 진언종을 新義로 구분하였다. 신의진언종은 1585년에 다시 풍산파(豐山派, 후잔파)와 지산파로 갈라졌으며, 대구 편조원이 창건되던 1910년경에 지산파의 총본산은 교토 이오부산(五百佛山)의 네고로지 치사쿠인(智積院)이었다.<sup>21</sup>

신의진언종 지산파의 별원과 포교소는 일제강점기 대구 편조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대략 1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朝鮮總督府官報』에 의하면, 대구 편조원은 경상북도 대구부 모토마치 2쵸메(丁目) 5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1919년 2월 17일에 정식 사찰로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았으며, 1921년 3월 4일에 本堂(불전) 건축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 무렵에 본당 공사가 한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다만 정식 허가를 받기 1년 전인 1918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19 1911년에는 6개 종단 11개 종파의 사찰, 별원, 포교소가 전국의 167개소에 창립되었고, 승려 수는 140명이었다. 1920년 대에는 236개소로 늘어났고 승려 수는 337명에 이르렀다. 인천광역시, 앞의 책(2019), pp. 23-39. 한편 조선총독부에 의해 사찰령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 대찰들을 조선총독부가 직접 관할하면서 일본 종파에 속해 있던 기존의 우리나라 사찰, 승려, 신도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20 大邱府 編纂, 『大邱民團史』(1915), pp. 114-115.

21 고의파는 다시 고의 진언종, 진언종 도지(東寺)파, 진언종 다이고파(醍醐派), 진언종 야마시나파(山階派), 진언종 오노파(小野派), 진언종 센뉴파(泉湧派)로 구분된다[平澤照尊, 『新義眞言宗史概觀』(東京: 東方書院, 1934), pp. 1-2.]. 고의 진언종은 고보다이시 쿠카이를 종조로 하며, 신의 진언종은 고보다이시 쿠카이를 종조로, 고교다이시 가쿠반을 중흥조로 한다.

22 『朝鮮總督府官報』 제1960호(1919년 2월 21일)에는 “慶尙北道 大邱府 元町 二丁目 五番地に 新義眞言宗 智山派 遍照院 창립의 件, 杉原新吉 외 36명에 의한 출원에 부쳐(付) 2월 17일에 허가한다”는 내용이, 『朝鮮總督府官報』 제2566호(1921년 3월 4일)에는 대구 편조원 본당 건축의 기간 연기를 신청하는 내용이 있다.

대구지도에는 해당 주소에 절 이름은 없고 “권”자만 표시되어 있어서 이 때 편조원이 어떤 형태로든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편조원의 이름은 고보다이시 쿠카이가 스승 惠果로부터 傳法灌頂을 받을 때 부여받은 “光明遍照”라는 密號에서 비롯되었다.

일제강점기 대구 편조원의 가람 배치와 본당의 내부 구조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950년대 전반에 편조원의 후신인 신탄사 본당(불전)이 다다미로 깔린 불단과 예불단, 즉 2단으로 이루어진 일본식 건축이었다는 증언을 통하여 원래의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다. 본당 내부의 안쪽 상단에는 불교 존상들이 봉안되어 있었고, 문 입구 쪽 하단에서는 예불이 이루어졌는데, 하단의 오른쪽 벽에는 사람들의 유골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불교 존상이 봉안된 안쪽의 불단(불당)과 그보다 한 단 낮은 앞쪽의 예불단(禮堂)으로 구성된 편조원 본당의 내부 구조는 일본 진언종 사원인 교토의 도지(東寺) 간조인(灌頂院: 843년 창건, 1585년 중건)과 가마쿠라시대의 진고지(神護寺) 간조도(灌頂堂)에서도 확인된다.<sup>23</sup> 다만 관정 의례가 행해졌던 도지 간조인, 진고지 간조도와 달리 대구 편조원 본당에서는 관정과 修法 의례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4</sup>

## 2. 대구 편조원 본당의 삼륜신상

일제강점기 대구 편조원의 본당에 봉안되었던 대일여래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은 밀교의 三輪身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즉 대일여래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삼륜신, 즉 여래, 보살, 명왕의 모습으로 바뀌며 자신의 가르침을 설하는데, 대일여래 그대로의 모습일 때 自性輪身, 자비로운 보살의 모습일 때 正法輪身, 분노한 명왕의 모습일 때 敎身輪身이라고 한다.<sup>25</sup> 삼륜신은 고보다이시 쿠카이와 관련되는 〈現圖九會金剛界曼荼羅〉에서 이미 확인되며, 만다라의 중심 존격으로서 대일여래(불), 金剛薩埵(보살), 降三世明王(명왕)이 그려져 있다.<sup>26</sup> 즉 본래 모습인 자성륜신 대일여래, 정법을 설하는 보살 모습인 정법륜신 금강살타, 험상궂은 명왕 모습인 교령륜신 향삼세명왕이 그것이다.

대구 편조원 본당에서도 자성륜신 대일여래상, 정법륜신 홍법대사상, 교령륜신 부동명왕상을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7</sup> 홍법대사상이 정법륜신인 보살의 성격을 지녔을 가능성은 오른손에 지닌

23 藤井恵介, 「密敎の建築空間」, 『研究発表と座談会 空海と密敎のかたち』[仏敎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 仏敎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報告書 31冊(2004)], pp. 1-11.

24 고야산의 관정 의례는 傳法灌頂과 結緣灌頂이 있는데 고야산의 전통을 계승하던 대구 편조원에서는 사찰의 규모로 보아 결연관정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지타 고칸, 「진언밀교(眞言密敎)의 성지(聖地)·고야산(高野山)과 그 곳에서 열리는 연중행사(年中行事)」, 『경남학』 31(2010), pp. 289-290.

25 大谷欣裕, 「三輪身の形成に関する一考察」, 『佛敎學研究』 64(2008), pp. 114-136.

26 賴富本宏, 앞의 논문(2009), p. 166.

27 대일여래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은 진언종의 三密(身密, 口密, 意密)의 관상의 대상으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川野憲一, 「基層信仰と密敎の融合—日本における不動明王の受容について」, 『文化學年報』 62(2013), pp. 383-400.



금강저가 密敎付法의 제2조인 금강살타의 금강저를 상징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sup>28</sup> 또한 신의진언종을 개창한 고보다이시 가쿠반이 처음으로 삼륜신상을 확립하였다는 점과 대구 편조원이 이 종파의 별원이라는 점도 이러한 추정에 힘을 실어 준다.

대구 편조원 본당에서 사람들은 이들 삼륜신상을 觀想하면서 대일여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하여 身·口·意 三密을 수행하였다. 사람들은 참회하고 정진하면 여래가 될 수 있다는 자성륜신 대일여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였고, 혹여 그 설법을 알아듣지 못하면 자신이 자비를 베풀면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정법륜신 보리살타(홍법대사)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자신이 折伏의 지혜를 가진 명왕이 될 수 있다는 교령륜신 부동명왕의 설법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였다.

#### IV. 맺음말

기천 대휴사의 일본 불교 존상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경에 신의진언종 지산파가 대구에 설치한 별원, 즉 대구 편조원 본당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들 존상 중 홍법대사상은 일본 진언종을 개창한 고보다이시 쿠카이의 모습이며, 대일여래상과 부동명왕상은 진언종의 불교 사상과 신앙을 대표하는 존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대일여래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은 대부분 마애상과 석조상으로, 대휴사의 존상들은 당시 일본 사찰에 봉안된 나무로 만든 일본 불교 존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들 불교 존상은 조형적으로는 근대적인 미감을 갖추고 있지만, 도상적인 연원은 헤이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대일여래상은 신의진언종을 개창한 고보다이시 가쿠반이 만든 대일여래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홍법대사상은 고보다이시 쿠카이의 제자였던 신노신노가 그린 신노신노 스타일을 따르고 있고, 부동명왕상은 겐조 스타일의 십구관 부동명왕상을 답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대구 편조원에 봉안되었던 불교 존상들의 전체적인 모습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들 존상은 신의진언종의 삼륜신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대일여래상, 홍법대사상, 부동명왕상이 각각 자성륜신, 정법륜신, 교령륜신의 성격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50년대 전반의 실달사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전신인 일제강점기의 대구 편조원에서 고보다이시 신앙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본당 내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달사 본당에 놓여 있던 유골들은 11세기 이후 고보다이시 신앙과 함께 유행했던 교야산의 납골 신앙의 전통을 보여 준다.

28 홍법대사상이 지닌 밀교의 五義五世界の 체험을 상징하는 금강저와 일체 중생의 교화를 뜻하는 염주에 금강살타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田邊三郎助, 앞의 논문(1968), pp. 5-19. 한편 고보다이시 쿠카이는 무로마치(室町) 시대(1336-1573)와 모모야마(桃山)시대(1574-1602)시대를 지나면서 金剛遍照佛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辻村泰善, 「繪画彫刻にみる弘法大師像の変遷」, 『密敎圖像』 10(1991), pp. 1-9.

## 참고문헌

### 【1차 문헌】

『大毗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卷第1  
『金剛頂經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一卷  
『不空羂索神變真言經』卷第9  
『大毗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疏』卷第5

### 【단행본, 보고서, 도록】

인천광역시,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인천·부산·목포에서 찾다-』 인천역사문화총서 87, 2019.  
高木神元, 『空海生涯とその周辺』, 東京: 吉川弘文館, 2006.  
大邱府 編纂, 『大邱民團史』, 東京: 秀英舎, 1915.  
渡辺照宏, 『不動明王』, 朝日選書35, 東京: 朝日新聞社, 1975.  
京都國立博物館・愛知県美術館・東京國立博物館・和歌山県立博物館, 『弘法大師入唐1200年記念 空海と高野山』, 大阪:NHK  
大阪放送局:NHKきんぎナディアプラン, 2004.  
東京國立博物館・京都國立博物館・北海道立近代美術館・岡山県立博物館・名古屋市博物館・福岡市美術館・眞言宗各派總  
大本山會・朝日新聞社, 『入定1150年 弘法大師と密教美術』, 東京: 朝日新聞社, 1983.  
東京國立博物館, 『空海と密教美術展』, 東京: 讀賣新聞社, 2011.  
賴富本宏, 『曼荼羅の鑑賞基礎知識』, 東京: 至文堂, 1991.  
毎日新聞社, 『四國靈場八十八ヶ所 空海と遍路文化展』, 東京: 毎日新聞社, 2002.  
白井優子, 『空海傳説の形成と高野山-入定傳説の形成と高野山納骨の發生』, 東京: 同成社, 1986.  
仙台市博物館, 『東日本大震災復興記念 特別展 空海と高野山の至宝』, 東京: 共同通信社, 2017.  
松本昭, 『弘法大師入定説の研究』, 東京: 六興出版, 1982.  
左和隆研, 『空海とその美術』, 東京: 朝日新聞社, 1984.  
齋藤昭俊, 『弘法大師信仰と傳説』, 東京: 新人物往來社, 1984.  
村上弘子, 『高野山信仰の成立と展開』, 東京: 雄山閣, 2009.  
平澤照尊, 『新義眞言宗史概觀』, 東京: 東方書院, 1934.  
俵谷和子, 『高野山信仰と權門貴紳』, 東京: 岩田書院, 2010.

### 【논문】

박규태, 「고야산(高野山)과 대사(大師)신앙: 그 종교적 중층성을 중심으로」, 『청람사학』 30, 2019.  
원영상, 「일본불교의 영장(靈場)과 성지순례문화 연구: 근대의 종교상황에 이르기까지」, 『종교연구』 52, 2008.  
이경화,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弘法大師像과 88靈場」,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_\_\_\_\_, 「근대기 목포 유달산의 마애조각」, 『불교미술사학』 28, 2019.  
후지타 고칸, 「진언밀교(眞言密敎)의 성지(聖地)·고야산(高野山)과 그 곳에서 열리는 연중행사(年中行事)」, 『경남학』 31, 2010.

- 見田隆鑑,「滋賀縣 余呉町・菅山寺不動明王坐像考」,『名古屋大學博物館報告』20, 2004.
- 大谷欣裕,「三輪身の形成に関する一考察」,『佛教學研究』64, 2008.
- 大石雅章,「四國遍路と弘法大師信仰」,『四國遍路と世界の巡禮』1, 2016.
- 福地佳代子,「脇侍像における童子形表現の展開—不動明王二童子像を通して—」,『東北福祉大學研究紀要』33, 2009.
- 濱田隆,「高野山の弘法大師像」,『Museum』137, 1962.
- 小倉右一郎,「弘法大師の肖像」,『密教研究』46, 1932.
- 林宏一,「法恩寺藏 木造大日如來坐像」,『國華』1401, 2011.
- 佐藤俊哉,「弘法大師空海の法身觀」,『印度學佛教學研究』60-2, 2002.
- \_\_\_\_\_,「弘法大師における仏身觀の源流を求めて」,『智山學報』56, 2007.
- 佐和隆研,「日本における不動明王とその展開」,『佛教藝術』12, 1951.
- 田邊三郎助,「東寺西院御影堂の弘法大師像」,『國華』910, 1968.
- 中野玄三,「不動明王画像の諸相」,『研究発表と座談会 不動明王の諸相 最澄と空海の書風について』, 仏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 仏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報告書 8冊, 1981.
- 井上正,「不動明王彫像に関する問題点」,『研究発表と座談会 不動明王の諸相 最澄と空海の書風について』, 仏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 仏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報告書 8冊, 1981.
- 津田徹英,「醍醐寺靈寶館所藏 五大明王像」,『佛教藝術』255, 2001.
- 浅淵毅,「初期の不動明王圖像」,『研究発表と座談会 空海と密教のかたち』, 仏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 仏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団助成研究会報告書 31冊, 2004.
- 浅見龍介,「六波羅蜜寺の佛像」,『Museum』620, 2009.
- 賴富本宏,「日本の大日如來」,『大日如來の世界』, 東京: 春秋社, 2009.
- 奥 健夫,「金剛寺藏 木造不動明王及び二童子像」,『國華』1401, 2011.
- 川野憲一,「基層信仰と密教の融合—日本における不動明王の受容について—」,『文化學年報』62, 2013.
- 村上保壽,「高野山の空間論」,『密教文化』214, 2005.
- ジョン モリス,「弘法大師入定説と神仙譚」,『年報日本思想史』13, 2014.
- Jon, Morris,「弘法大師入定説の洋式に関する一考察」,『駒沢女子大學研究紀要』22, 2015.

# 【관보】

-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官報』, 제1960호(1919년 2월 21일)
- \_\_\_\_\_,『朝鮮總督府官報』, 제2566호(1921년 3월 4일)

# Japanese Buddhist Sculptures of Daehyusa Temple(大休寺) in Gimcheon(金泉) Enshrined in the Henjoin Temple(遍照院) in Daegu(大邱)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aeho Bae\*

Three Japanese Buddhist sculptures of Daehyusa temple in Gimcheon, Gyeongsangbuk-do province(慶尙北道) are enshrined in the main hall(本堂) of Henjoin temple in Daegu, an annex temple built by the Chisan School(智山派) of Shingi Shingon sect(新義眞言宗) in Daegu around 1910 whe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gan. The following statues are believed to have been made around this time: the Statue of Kobo daishi(弘法大師像), which is the figure of monk Kukai(空海, 774-835), the founder of the Shingon sect(眞言宗) of Japan, and the Statue of Dainichi nyorai(大日如來像) and the Statue of Fudo myo-o(不動明王像), which are notable sculptures representing the thought and belief of the Shingon sect. Most statues identified of Dainichi nyorai, Kobo daishi, and Fudo myo-o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us far are rock-carved statues or stone statues. The statues of Daehyusa temple are noteworthy in that they are the first discovered Japanese Buddhist sculptures made of wood, known to have been enshrined in Japanese temples. Furthermore, they are valuable sources that can provide clues to the religious atmosphere of the temples of Chisan School of Shingi Shingon sect at the time.

Although these statues have formative features that partially reflect modern aesthetics, their iconographic origins date back to the Heian period(平安時代, 794-1185). In other words, the Statue of Dainichi nyorai inherits the religious tradition of the Statue of Dainichi nyorai, which was created by monk Kakuban(覺鑊, 1095-1143), the founder of the Shingi Shingon sect. The Statue of Kobo daishi follows the Shinnyo Shinno(眞如親王) style founded by Monk-Imperial Prince Shinnyo who was a disciple of monk Kukai. The Statue of Fudo myo-o manifests the Genjo(玄祖) style among the statues of Fudo myo-o.

Although not much is known about how the statues were enshrined in the Henjoin temple in Daeg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is very likely that these statues were created as Shingi

---

\*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Yong In University

Shingon sect's statue of three-wheeled body(三輪身). That is, it is estimated that the Statue of Dainichi nyorai, Statue of Kobo daishi, and Statue of Fudo myo-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dy of self-nature chakra(自性輪身), the body of great dharma chakra(正法輪身), and the body of order chakra(教令輪身), respectively. The fact that the statue of three-wheeled body was established in the Shingon sect in Japan by monk Kakuban also lends credence to this possibility. It is thought that people who came to the Henjoin temple in Daegu worshiped the statue of three-wheeled body to understand the teachings of the Dainichi nyorai. Although it is the case of Sildalsa Temple (悉達寺, the successor of Henjoin temple in Daegu)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the main hall includes features that reinforce the idea that the tradition of Kobo daisi faith(弘法大師信仰) is passed on. To illustrate, the human skeletal remains in the main hall of Sildalsa Temple reflect Koyasan(高野山)'s tradition in laying ashes to rest, which has been popular in conjunction with the Kobo daishi faith in Japan since the 11th century.

Keywords: Henjoin temple in Daegu, Daehyusa temple in Gimcheon, Statue of Dainichi nyorai, Statue of Kobo daishi, Statue of Fudo myo-o, Chisan school of Shingi Shingon sect